

Dave Mathewson 박사, 요한계시록, 강의 25, 요한계시록 19:11-21, 전사에 대한 묘사 그리고 전투 설명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요한계시록 19:11-21의 25회기입니다. 전사에 대한 설명과 전투 또는 심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19장과 11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17장과 18장의 절정과 19장의 첫 부분을 소개합니다. 17장과 18장은 바벨론 자체, 즉 로마 바벨론의 멸망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제 19장,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동맹국들의 심판, 즉 그 나라와 간음한 나라들의 심판에 할애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먼저 바벨론은 17장과 18장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심판이 지금으로서는 나머지 세계, 특히 바벨론의 동맹자이자 미혹을 받아 간음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것. 그러므로 17장과 18장이 세상 종말을 배경으로 로마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는 한, 어떤 의미에서 19장은 연대순으로 17장과 18장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9장은 역사적 로마의 멸망을 따릅니다.

그러나 반면에 로마의 멸망을 세상 종말에 바벨론의 최종 멸망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19장은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그래서 다시 17장과 18장은 로마 바벨론의 멸망이지만 그 후 나머지 땅도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장이 나옵니다.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모든 악한 세력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인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을 압제하는 모든 패역하고 교만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19장. 19장 11절부터 21장까지의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전반부에는 주인공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그 분이 바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용사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장 이후에는 전투 자체가 설명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전혀 전투가 아니라는 것을 잠시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전투는 실제로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장부터 16장까지 두 부분에서 전투에 나가는 용사, 즉 백마를 탄 자에 대한 묘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17절 이하에서는 전투 자체가 묘사됩니다. 이 부분이 구성되는 방식에 따르면, 이 부분의 초점은 17절 이하의 전투 자체가 아니라 전사, 흰 말을 탄 예수 그리스도, 흰 말을 탄 기수에 대한 설명이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 그에 대한 묘사는 19장의 가장 두드러진 요소이자 초점이다.

이제 19장 11절은 중요한 특징으로 시작하는데, 그것은 11절에서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다른 곳은 요한이 천국이 열린 것을 본 4장 1절과 2절에서였습니다. 그 후 그는 환상을 보기 위해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고, 신성한 보좌의 방을 보았습니다. 내 생각에 천국이 열린다는 이 언급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부분이자 절정을 이루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은 역사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져올 결과를 묘사하는 일련의 이미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9장의 11절이 그것에 대한 서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열림으로써 그것은 4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장면, 새로운 의미 있는 장면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이 열린 이 장면은 요한이 올라가서 하늘 세계를 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는 결과를 낳습니다. 역사의 종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구속계획은 심판과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19장과 11절을 보면 지금부터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다시 한 번

여기에서 시작하여 21장까지 이어지는 여러 장면입니다. 반드시 연대순으로 이어지지 않는 여러 장면이 있습니다. 즉, 연대순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반드시 묘사하지 않는 여러 장면이 있습니다.

그 대신, 저자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해 여러 이미지를 그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달성합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자는 역사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 다양한 장면을 통해 다양한 이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9장과 11절은 중요한 부분을 시작하고 실제로 자체 장 구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른 섹션을 읽은 것처럼 19장을 읽어서 텍스트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뛰어들어 텍스트의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려고 하기보다는 텍스트의 효과를 시각화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11절부터 시작합니다.

, 이것은 최후 심판 장면에 대한 요한의 설명입니다. 나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의 백마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행하십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옷을 입고 피에 젖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백마를 타고 희고 깨끗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만국을 칠 날카로운 검이 나오더라. 그는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셨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전쟁을 하러 오시는 전사, 즉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다가 17절에서

, 나는 태양 속에 서있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오라 너희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과 장군들과 용사들과 말들과 기수들과 만찬의 고기를 먹으라 자유인과 노예, 작은 사람과 큰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육체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흰 말 탄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모였느니라. 그러나 그 짐승은 잡혔고, 그를 대신하여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더라. 요한계시록 13장.

이 표징으로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미혹하였느니라. 그들 둘은 산 채로 유황불이 타는 호수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백마 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새들은 그들의 살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 중 예수님을 복음의 이미지, 순한 어린양, 주위에 어린아이들이 모인 사람, 그리고 내 명예를 메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이미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은 우리는 빛, 우리는 지금 우리가 19장에서 보는 인자의 환상이나 예수님의 환상을 받아들이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분은 온유한 목자와 아이들을 안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친절한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제시됩니다. 그는 복음에서 그렇게 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도 예수님께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하시는 곳은 많지만 여기서 보는 예수님의 비전을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나 교회에 걸려 있는 초상화에서 이 예수님의 그림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그의 모든 영광 중에 오시며, 나머지 세상과 그의 적들과 싸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나오시는 것을 봅니다. 그가 백마를 타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다른 곳에서 계시록과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암시합니다.

우리는 이미 전투 장면에서 말이 하는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6장 첫째 인에는 말을 탄 자가 나오며 흰 옷을 입고 활과 화살을 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분명히 전쟁과 파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우리는 저자가 악마적 존재들과 분명히 연결한 악마 기병대, 말, 기수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을 탄 자는 분명히 정복과 전쟁과 패배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로마 제국과 마귀의 기병대와는 대조적으로 이제 예수께서는 말을 타고 나오시며 전쟁을 하시고 원수들을 물리치러 나오신다는 것을 봅니다.

나는 11절부터 16절까지가 아마도 이 부분의 초점일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제안했습니다. 즉, 주요 초점은 전투와 전쟁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실제로 전투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전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 전쟁 이미지가 무엇을 가리키고 상징하고 나타낼 수 있는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장의 초점은 11장부터 16장까지의 전사에 대한 묘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묘사되는 방식은 특히 하나님을 전사로 언급하는 여러 구약의 본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저자는 또한 몇 가지 이미지를 그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장에서 요한은 인자의 환상을 보았고, 예를 들어 그의 입에서 검이 나오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빛난 청동 같은 발과 불 같은 눈 등으로 묘사됩니다. 여러분은 2장과 3장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저자는 구약성경 본문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합성 그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도 제공합니다. 1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원수를 물리칠 수 있으면서도 완전히 공의로운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단지 와서 그의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대한 전사로만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원수들을 물리칠 만큼 충분히 유능하시고 강력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또한 저자는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언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과 공의로움에 대한 언어는 18장과 19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바벨론에 대한 패배나 심판을 통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분으로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전면전에서 적들을 물리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도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재림,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이 지적인 역사의 완성, 우리가 그 일부분을 본 것, 우리의 식욕이 자극되어 마침내 보게 된 것을 발견하며, 이제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완전한 것을 봅니다. 최후의 전투를 공개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심판 장면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섯째 인에서 시작하여 6장에서 주의 날과 대적들의 패배를 예상한 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17장에서 예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모든 나라가 어린양을 물리치기 위해 모였으나 어린양은 아무런 투쟁도 하지 않고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14장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어린양과 함께 서서 승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이 장면을 여러 번 예상했지만 이제 마침내 우리가 기다려온 더 완전한 초상화를 발견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 묘사되는 몇 가지 방식과 마지막 전투 장면에서 그분의 정의에 대해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선, 그는 신실하고 진실하다고 일컬어진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 언어와 또한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는 이의 언어는 바로 구약에서 나온 것입니다. 많은 시편은 예수를 지금,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으로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약 본문인 이사야 11장에 대한 구체적인 암시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에는 흥미롭게도 11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으며 여호와와 영이 그 위에 임하시리라.

3절,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기뻐하며 눈에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사야 11장 4절에 보면 공의로 심판하리라 그는 공의로 궁핍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로 세상의 가난한 자를 위하여 판결하며 그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리로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메시아 인물이 이제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 특히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악인을 죽이는 분으로 묘사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19장에서는 신실함과 의로움과 공의라는 비슷한 언어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백성을 옹호하시며, 이제는 자기 원수들을 벌하러 오시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사실은 아마도 또 다른 심판의 모티브일 것이다. 우리는 2장 18-23절에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상황 때문에 사용된 주요 비유적 표현이거나 주요 이미지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1장 13절로 돌아가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등잔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옷을 입고 발까지 끌렸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이제 우리는 인자의 초상을 봅니다. 큰 재판관으로 오시고 지금은 용사로 오실 것입니다. 그는 의와 공의로 자기 백성, 자기 성도들을 위하여 결정하고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땅의 나라들에 심판을 가져오느니라. 그가 머리에 면류관을 쓴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곳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왕관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일곱 개의 머리에 왕관을 쓴 짐승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머리에 면류관을 쓴 자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일곱 면류관을 가진 짐승 사이의 패러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나가서 이기고

성도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신성한 지위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과 정반대로 오셔서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모든 나라에 대한 자신의 능력과 주권을 나타내시며 이제 심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은 그리스도가 아무도 모르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이름이 무엇인지 제안하는 모든 세부 사항을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우리는 계시록 전체에 걸쳐 이미 이름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즉, 사람들의 이마에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사야 62장 2절에는 새 이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은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지만, 아무도 모르는 이름입니다.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그다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알아낼 수 없는 신비한 이름입니다. 이것의 배경은 누군가의 이름을 아는 것, 그 사람을 통제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악마의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맥락에서, 또는 악마의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악마, 그 신,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모르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함으로써, 그것이 비밀스럽고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알아낼 수 없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면서 이름을 짓는다는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지배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계시며,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은 땅의 모든 나라와 용과 두 짐승을 포함한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그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주권을 의미합니다. 잠시만. 이미지를 통해 주의를 끄는 두 가지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옷을 피에 적신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에 참여하기 전, 그리고 전투가 묘사되기 전에 자신의 옷을 피에 적시는 것으로 묘사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가 참여한 다른 전투에 대한 언급일 것입니다. 한 가지 제안은 이 피가 실제로 그 자신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논쟁의 일부입니다: 예수 옷에 묻은 이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한 가지 제안은 이것이 예수 자신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아이러니한 방식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승리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 승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피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의 죽음. 그가 극복한 아이러니한 방식을 다시 한 번 묘사한다. 로마와는 다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극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께서 전투에 임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옷에 묻은 피를 이해하는 열쇠는 흥미롭게도 다시 그 점으로 돌아가서 구약의 문맥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이사야 63장이 1절부터 3절까지가 예수님을 묘사하는 배경이 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63장이 포도 수확의 배경을 제공했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14장 마지막에 포도 수확하는 환상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는 것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나오는 것은 포도즙이 아니요, 나오는 것은 원수의 피니라. 이사야 6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러한 배경은 이미 피에 적신 그리스도의 옷에 대한 묘사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63장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복수의 날,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를 벌하러 다시 오실 심판의 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홍색 옷을 입고 에돔 보스라에서 오는 이 사람은 누구냐? 영화로운 옷을 입고 그의 힘의 위대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의롭게 말하며 구원하기에 능한 이니라. 어찌하여 당신의 옷은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의 옷처럼 붉습니까? 나는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습니다.

이방 사람들 중에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짓밟았고, 진노하여 그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나도 그들의 피로 내 옷을 모두 더럽혔느니라.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마도 14장에 나오는 포도주 틀을 밟고 원수의 피를 흘리는 심판 장면을

이해하려면 아마도 예수님의 옷에 묻은 피, 포도주에 적신 옷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피, 여기 19장에서도 같은 방식으로요.

그 피는 그 자신의 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이사야 63장의 성취에서 피는 주로 그의 원수들의 피입니다. 그의 원수들의 피는 하나님의 보혈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포도주 틀을 짓밟고 원수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 이제 이상해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적들을 물리치시기 전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옷이 피에 젖도록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것이 묵시적인 상징주의의 일부일 뿐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가 적과 싸우기 전에 어떻게 적의 피를 가지고 있는지 제안하는 데 문자 그대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은 우리에게 정확하고 상세하며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싸우시기 전에는 옷에 피가 묻은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요한은 전쟁을 일으키는 데 있어 전사를 설명하고 그의 능력과 정의를 보여주기 위해 구약성경 본문을 그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단순히 이사야 63장에 대한 그의 암시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제 이사야 63장을 성취하는 전사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분은 적들을 물리치기도 전에 피에 젖은 옷의 형상을 그립니다. 그러나 이사야 63장을 성취하실 분이 곧 오셔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죽이고 심판하실 때, 그는 이미 그리스도의 본성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은 이 배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의 입에서 검이 나오는 것으로 묘사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고, 2장과 3장에서도 교회 중 하나와 관련하여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의 이미지는 분명히 구약성경 본문에 의존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것을 주로 심판 장면으로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선택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49장과 2절은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성구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49장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게 만드셨도다. 그 손 그늘에 나를 숨기셨도다

그분은 나를 같은 화살처럼 만드시고 나를 그분의 전통 속에 감추셨습니다. 그런데 첫 부분에서 그는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이사야서 11장과 4절을 보면, 그는 공의로 궁핍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공의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결정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는 입의 막대로 땅을 칠 것이다. 그분은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공의를 집행하러 오시는 분의 이미지로서 입에서 검이 나오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그림을 제시하거나 구성하려는 것은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입에서 칼이 나오는 모습이 제가 보고 싶은 예수님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5장 앞부분에서 그는 죽임을 당한 양이 아닌가? 그리고 그에게는 일곱 영과 일곱 눈, 즉 일곱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게는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 있습니다. 이제 그는 일곱 개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칼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니요, 요한은 주로 구약성경과 기타 묵시문학의 상징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은 구약의 언어를 빌려 공의와 공의로 처형하러 오시는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과 그분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반역적인 악한 인류에게 하느님의 심판을 집행하러 오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칼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은 저자를 다음 텍스트로 이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편 2장입니다. 저자는 15절에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 칼로 만국을 칠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그는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시편 2장과 8절에 대한 분명한 암시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묘사했습니다. 구약의 언어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은 그를 공의를 집행하러 오는 강력한 전사, 하나님의 공의, 전투의 형태로 집행하러 오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여 이 땅에 공의를 베푸소서.

그리고 이 모든 구약성경 본문은 그러한 종류의 맥락에서 도출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강력한 전사로 누적적으로 묘사합니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특징은 다소 흥미롭습니다.

다른 두 가지 기능. 흥미롭게도 13절에서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외에, 이곳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언급되는 유일한 곳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처음에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말씀인 로고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것은 John 이외의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은 본문 후반부에서 백마 탄 사람이 '정확한 구절을 찾아보는데'라고 묘사되는데, 거기에는 그의 군대가 그를 따르게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백마를 타고 오시고, 그분의 군대 곧 하늘의 군대가 그 뒤를 따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흥미롭게도 두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점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군대는 분명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군대는 실제로 어떠한 전투나 전투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14절이 제가 찾던 구절이었는데, 하늘의 군대가 그를 따르더군요. 그러나 군대에 주목하세요. 그랜트 오스본(Grant Osborne)이 자신의 논평에서 말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군대는 분명히 적의 패배에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본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실 본문은 거의 그 반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을 물리치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게다가 11절부터 16절까지에서 묘사된 대로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 군대가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묘사한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아마도 전투 장면과 전투 이미지를 추가했을 뿐인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들은 전투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군대에 대해 말할 것은 이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성도들 자신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아니면 천사 같은 존재로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논평에서는 둘 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둘 다의 조합인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성도들 자신의 환상임을 나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입증의 장면을 더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원수를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을 변호하실 때 그들의 피를 갚으실 때 그리스도와 동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했듯이 그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전사는 전투를 수행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끝부분과 16절 끝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전투에 대한 묘사를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수 있고 적의 손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변호할 수 있는 능력 있고 공의로운 전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구약의 성취에서 이 일을 수행하실 수 있는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이제 17절에서 이 장의 끝까지 우리는 전투 자체에 대한 묘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저는 단지 전투에 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본 에스겔서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요한이 이사야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과는 달리, 그는 이사야의 여러 위치, 요한계시록의 여러 위치에서 텍스트를 수집하여 요한이 본 것과 요한이 시도하고 있는 것을 주제별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사야를 더 주제별로 사용합니다. 설명하기.

이와 달리 에스겔서는 요한이 에스겔서 본문의 순서대로 크게 따를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4장과 5장에서 요한이 에스겔 1장과 2장을 인용하여 왕좌의 방을 묘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요한은 보호를 위해 144,000명을 인봉하는 상징을 에스겔 9장에 그렸습니다.

우리는 17장과 18장에서 요한이 바벨론의 몰락이나 두로의 몰락, 경제적 용어로 두로의 심판을 묘사하기 위해 에스겔 27장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요한은 마지막 때의 전투 장면인 에스겔 38장과 39장을 설명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를 일으키고 그 안에 살을 넣고 생명을 주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읽은 후 38장과 39장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발견합니다. 마지막 전투.

따라서 에스겔 39장은 요한계시록 19장과 17절부터 21절까지의 주요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 39장을 읽을 때 저는 단지 연결성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여기저기서 몇 구절을 읽고 싶습니다. 39장 4절부터. 너와 네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산에서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썩은 고기와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주리라. 그리고 17절로 내려갑니다. 인자, 사실 이것은 에스겔에게 사용된 칭호입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온갖 새와 모든 들짐승을 불러 모아 여기로 불러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는 제사에 각처에서 모여 함께 오라

이스라엘 산에서의 큰 희생. 거기서 너희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실 것이며 너희는 용사들의 고기를 먹으며 땅 위의 모든 고관들의 피를 마실 것이니 그들은 바산의 수양과 어린 양과 염소와 황소 곧 살진 짐승들인 것 같으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제사에서 너희는 배불리도록 기름을 먹고 취하도록 피를 마실 것이다.

너희가 내 상에서 말과 기수와 용사와 군사와 모든 종류를 배불리 먹으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19장 17절에서 이미지를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사실 17~18절은 실제로 전투를 위한 준비에 불과합니다.

즉, 이제 17장과 18장에서는 곧 일어날 맹공격과 살육과 전쟁에 대비하여 에스겔이 39장에서 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천사는 새들에게 와서 잔치를 준비하라고 부릅니다. 이제 마지막 전투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19장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만찬이나 어린양의 잔치와 대조하여 잔치나 큰 만찬에 대한 이 언어를 읽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잔치나 만찬을 발견하지만 이제 초대받은 손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잔치이고 새들은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이미지를 위해 분명히 에스겔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레나 잔치를 위해 모이는 새들의 언어는 단순히 전투의 결과로 일어날 대학살과 파괴를 상징하는 이미지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17절과 18절은 단지 준비 단계일 뿐이고, 19절과 21절은 전투를 서술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마지막 때의 전쟁에 대한 이미지를 에스겔 39장에서 그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것의 대부분에 대해 언급해야 할 또 다른 사실은 John이 여기에서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 그대로 새들이 지구상 어딘가에 와서 죽음을 당한 전사들과 병사들의 시체를 게걸스럽게 먹어치울 때를 말 그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에스겔 38장과 39장에 있는 또 다른 묵시적 예표 책의 언어적 이미지와 상징을 사용하여 백마를 탄 그리스도께서 하게 될 마지막 심판의 최종성, 범위 및 완전한 파멸을 간단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와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에스겔 39장과 38장은 요한이 마지막 전쟁에 대한 비전을 구성하기 위해 끌어들이는 주요 본문인 주요 모델로 기능합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두 번째 것은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필요 없어; 이것은 정상적인 전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특이한 전투입니다. 대부분의 전투에서는 군대가 줄을 서고 양쪽 모두 사상자가 발생하며 한쪽이 승리할 때까지 작은 접전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싸움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어린 양은 단지 내려오셔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의 원수들을 죽이십니다.

에스겔 38장에서는 실제로 적들이 불로 멸망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나중에 20장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전투 장면에서 요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대가 아니라 적들의 패배를 묘사합니다.

양측 모두 사상자가 발생하는 전투는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린양이 오셔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원수들을 물리치십니다. 이 전쟁, 저 전쟁, 전쟁의 위협이 아마겟돈일지 아니면 마지막 전쟁일지 궁금해하는 시도에 대응하는 데 이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사상자가 발생하고 전투가 발생하면 종말 전투에는 전투가 없기 때문에 종말 전투가 아니라는 것을 거의 확신할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오셔서 그의 입에서 나온 검으로 그의 원수들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볼 때나 실제 전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전투의 위협을 볼 때, 저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전투는 역사가 본 적이 없는 전투와 같기 때문입니다. 양측 또는 두 군대.

어린 양은 단지 다시 돌아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의 원수들을 죽이거나 심판할 뿐입니다. 이 마지막 전투 장면에 대해 내가 말하고 싶은 세 번째 관찰은 사용된 구약성경 본문에 비추어, 특히 칼의 이미지에 비추어 볼 때 내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물리치는 방법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그리고 내 판단에 따르면 이 마지막 전쟁은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어떤 종류의 영적 전쟁이든 문자 그대로의 싸움을 전혀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전투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자는 단순히 입으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고 묘사하기 위해 전투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문자적으로 일차적으로 전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저자는 예수께서 단지 말씀으로 집행하시는 온전한 심판과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최종 심판을 묘사하기 위해 전투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것이 주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심판 장면이라고 생각하며, 지금은 그것이 큰 전쟁의 언어로 묘사되고 상징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투 이미지가 매우 구체적인 것을 상징하고 매우 구체적인 것을 말하는데 사용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은 말 그대로 종말의 큰 화재나 갈등이나 전투가 아니라 심판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 일어나는 심판일 뿐입니다.

넷째, 먼저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처분하시거나 심판하시는 첫 번째 원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이들은 용사들을 모아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제 20절에서는 먼저 모든 짐승이 잡혔고 그 다음에는 13장의 거짓 선지자가 잡혔습니다. 이것은 또한 13장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로마와 동일시되고 아마도 로마 속주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시됨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로마 제국의 짐승과 로마와 아마도 황제를 상징하는 1위 짐승에게 관심을 끌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들이 최후의 심판 때에 실제로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는 짐승 같은 인물들이 단순한 로마 이상의 존재임을 다시 한번 암시합니다. 그들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의 다른 나라들, 즉 신이 없고 우상을 숭배하며 압제하는 다른 나라들에 거주하고 활력을 주고 영감을 주었던 바로 그 짐승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로마 정부와 로마 제국의 형태로 표면화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다가올 최후의 심판을 받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다.

그래서 먼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의 다른 이름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진다. 불못이 다시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르면 불못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두 가지 관찰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용에 대해 궁금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마리의 짐승이 제거되고 있는데 용은 어떻게 됩니까? 글쎄, 우리는 다음 장까지 드래곤을 기다려야 합니다. 몇 구절 뒤인 20장에서 용은 폐위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요한이 한 일은 문자 그대로 두 짐승과 용을 소개된 반대 방식이나 반대 순서로 버리는 것입니다. 12장에서는 용을 소개하고, 13장에서는 두 짐승을 소개합니다.

이제 제거 작업에서 두 짐승은 19장에서 먼저 제거되고 그 다음 용은 제거되어 20장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용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요한이 점진적으로 악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거됨. 17장과 18장에서는 바벨론이 제거되고 심판을 받는 것으로 시작하여 나머지 세상을 심판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또한 모든 짐승, 즉 두 짐승을 먼저 제거하는 것을 수반하며, 마지막으로 20장에서는 심판의 형태로 악을 제거하는 점진적인 장면에서 사탄 자신도 제거될 것입니다. 둘째,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히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전해서는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용이나 나중에는 열방이 심판을 받을 것처럼 연대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 즉 온전한 심판과 모든 악의 온전한 제거가 일어나는 일을 일련의 이미지를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고자 한다. 그러나 이제 내가 말했듯이 그는 문자적인 싸움이나 문자적인 대학살을 통해서가 아니라 심판의 언어가 사용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전투의 언어는

하나님의 심판의 신속하고 단호한 성격을 보여주고 여기에서 권세들을 물리치는 데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고 패배시키려는 로마 제국의 억압적인 활동과 살인적인 시도를 영감하고 실제로 그 배후에 두었던 짐승 같은 인물, 첫째와 둘째 짐승,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래서 당연히 그들이 먼저 심판에 들어가고 그 뒤를 이어 20절에 보면 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임을 당하는데 이는 다시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과 모든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의 원수들은 마침내 패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내가 말했듯이 21장에서 새로운 창조의 출현을 위한 길을 준비할 심판 장면의 형태로 악을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20장의 끝에 도달하면, 모든 악이 제거되었고, 모든 악이 심판되었으며, 억압적이고, 신이 없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악한 제국과 그것이 통치했던 땅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며, 심판의 장면에서 모두 제거되었으므로 이제 유일한 것은 왼쪽은 신실하고 짐승과 짐승의 요구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그의 백성에게 기업과 보상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19장 11-21장, 특히 17-21장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전쟁은 묘사된 방식이나 상징하는 방식에서 전혀 전투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의 싸움이 아닌 최종 심판은 우리가 16장에서 제기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16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17장도 추가하고 싶습니다. 17장이 끝날 무렵 우리는 땅의 왕들이 짐승과 결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린양과 전쟁을 벌이려고 짐승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본문도 포함하고 싶지만 여섯째 대접 심판의 일부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부정한 삼위일체가 나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16장 14절부터 시작합니다. 개구리들은 출애굽의 재앙을 반영할 수 있었고, 그들은 열방을 속여 전쟁을 위해 모이게 할 수 있었으며, 저자는 16절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아마도 현재 유명한 전쟁 장소에 대한 구약의 개념을 빌린 것으로 묘사합니다. 마지막 전투 장면처럼 종말론적인 비율로 폭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6절에서 전쟁에 대한 묘사가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전투를 위해 그들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만 언급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전투에 대한

설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17장 끝 부분에서는 12절부터 내가 방금 언급한 전쟁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너희가 본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받지 못하였으니 오직 한 사람에게는 때가 되면 그들은 그 짐승과 함께 왕으로서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 어린양으로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과 땅의 이 왕들, 곧 열 뿔로 상징된 이 왕들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리라. 그러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름과 비슷합니다. 사실, 19장 16절에 나오는 예수의 옷에서 발견된 정확한 이름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지금까지 두 번의 전쟁이 있는데, 16장 아마겟돈 전쟁에는 용에게서 나오는 개구리와 두 짐승에 의해 나라들이 모이고 왕들이 모여 전쟁을 벌이는 곳입니다. 그런 다음 17장에서는 짐승과 그의 열 왕국과 어린 양 사이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패배합니다. 이제 19장에서는 11절과 17-21절의 또 다른 전투를 소개합니다.

또 다른 전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타신 분이 직접 오셔서 싸워서 그들을 대항하여 모인 원수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19절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 짐승과 땅의 왕들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17장에 나오는 왕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열 왕과 그들의 군대가 모여서 그 탄 자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므로 열 왕은 모든 왕국, 즉 왕의 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세상의 끝에서 온 땅이 모여 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장 8절 20절과 8절 7절부터 보면 실제로 천년이 차매 사탄이 놓여 나가서 땅 사방에 있는 만국을 미혹하겠고 곡 그리고 마곡은 전투를 위해 그들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성도들의 성으로 올라가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그들을 삼키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얼마나 많은 전투가 있나요? 이 네 가지 전투가 다른가요? 마지막 때까지 일련의 전투가 있습니까? 전투가 2개인가요? 전투가 3개인가요? 이들 중 일부가 겹치나요? 전투가 하나 있나요? 내 생각에는 이 모든 전투가 동일한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두 사탄이나 짐승이 나라들을 미혹하고 모아 전쟁을 하게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어떤 전쟁도 하지 않고 단순히 패배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짐승이 그들을 모으는 아마겟돈 전쟁인 16장과 짐승과 열왕이 어린 양을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는 17장에 더 묘사되어 있는데,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영주들이 그들을 패배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전투가 세 번째로 다시 설명되는 것을 봅니다. 같은 전투이지만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장에서는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짐승과 열왕이 다시 한 번 군대를 모은 곳으로 나가십니다. 군대를 모으는 주제와 짐승이나 사탄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고 그들은 단순히 어린 양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는 주제에 주목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장도 같은 전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최후의 전투입니다. 사탄이 16장 아마겟돈 전쟁에서 했던 것처럼 나라들을 속이고 있다는 점에 다시 한 번 주목하십시오.

사탄은 나라들을 속여 전쟁을 위해 모이게 합니다. 전투를 위해 그들을 모으고, 전쟁을 준비하고, 그들은 단순히 패배한다는 주제에 주목하십시오. 그런데 20장의 전투와 19장의 전투를 연결하는 또 다른 점은 두 전투 뒤에 동일한 구약성경 본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정확히 동일한 종말의 전쟁을 언급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저자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전쟁에 대해 네 번째로 설명합니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토론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19장은 다시 첫 번째 결과로 끝납니다. 19장 11절은 계시록의 새로운 부분, 일련의 이미지, 일련의 장면을 시작하여 파루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서 일어나는 일을 묘사합니다. 여기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첫 장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결과가 될 최종 심판을 묘사합니다. 이제 아직 정리할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20장에도 여전히 심판의 장면이 있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21장과 22장에서 모든 악에 대한 최종 심판, 모든 악의 제거, 새로운 창조의 출현을 위한 길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요한계시록 19:11-21의 25회기입니다. 전사에 대한 설명과 전투 또는 심판에 대한 설명입니다.